

1700년 한국불교문화 ‘파리의 밤’ 적시다



성전스님의
행복해지고 싶을 때

나 이만큼 걸어 왔네

파블로 네루다의 시구 하나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였어. 시가 내게로 왔어. 몰라.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거울에서인지 강에서인지.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생애 모든 것은 어쩌면 이 시에서처럼 불현듯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생의 모든 것을 알고자 하나 생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비밀로 합니다. 그렇게 살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찾던 그것이 내 안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은 그렇게 불현듯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멋진 말 하나를 만났습니다. “연개 되면 행운이고 연지 못하게 되면 운명이라고 생각하라.” 티베트의 한 스님이 던진 이 말의 궁극은 연음도 잃음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연음과 잃음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인연을 따라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인연을 아는 자는 생의 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행운과 운명 사이에 좌의와 집착은 자리할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만큼 걷다보니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다 될 것만 같았던 날들이 얼마나 부질없었고, 잃었다고 소리쳐 울던 날들이 얼마나 허망한 몸짓이었는지 이제는 알게 된 것만 같습니다. 언젠가 절집 추녀 밑 마루에 앉아 풍경소리를 들으며 그리던 평화를 가을 저녁 다시 앉은 절집 추녀 밑에서 이렇게 불현듯 만나게 된 것입니다.

먼 길을 찾아온 도반과 차를 나누며 생애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밖은 짙은 어둠에 쌓이고 바람이 불고 중으로 사는 한 생애가 외롭다며 웃었습니다. 중으로 이만큼 살았으니 더 무엇을 집착하겠느냐는 도반의 말이 가을바람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언제 생의 얼굴을 본 것일까.

이제는 도반을 만나도 말소리보다 차 따르는 소리의 횡수가 더 많습니다. 침묵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침묵과 침묵 사이에 한 생을 오래도록 걸어온 사람들의 긴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집착을 버려야 비로소 생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그 긴 깨달음의 이야기기. 말이 없지만 도반이 참 좋아 보이는 가을밤입니다.

남해 엄불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기금모연**

- ARS모연 : 060-700-1027
- 문자모연 : #25401로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 창에 사찰명 또는 개인이름 입력)
- 모연계좌 : 농협 301-0160-9713-71 (계:대한불교조계종기금)
- 모연문의 : 02-730-6690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 10·27법난 36주년... 희생자 천도제 4면

10월24~29일 韓佛수교 130주년 ‘수행자의 하루’ 무대 깊은 인상 전통 사찰음식에 또 한 번 감탄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1700년 한국불교 전통과 수행자의 삶’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조계종은 지난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 일대에서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한국불교 우수성을 알리는 법석을 열고, 1700년 동안 면면히 내려온 전통문화와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등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한국불교 세계화 일환으로 2010년 미국 뉴욕과 2011년 프랑스 파리, 2013년 호주 시드니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린 대규모 국제행사다.

프랑스는 유럽 내 불교신자가 가장 많은 국가로 손꼽히는 만큼, 행사기간 내내 일찌감치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로 북적여 불교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종단은 파리 현지 시각 10월25일 주불한국문화원에서 ‘한국불교로의 여행-불교문화 체험 전시회’ 개막식을 갖고 한국불교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불교는 한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고 있다”면서 “이곳 행사를 계기로 한국과 프랑스의 민간 문화 교류가 폭넓게 이뤄지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26일은 파리 중심가에 위치한 메



종 드 라 뒤편알리페 공연장에서 현지 문화에 술게 주요 인사 300여 명을 초청해 사찰음식 만찬과 리셉션을 열었다. 특히 수행자의 하루 일상을 소개하는 문화공연인 ‘산사의 하루’를 20여 명의 한국 스님들이 직접 선보여 현지인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도량석과 새벽예불, 발우공양, 율력 등 수행자의 일상을 공

연화 해 해의 무대에서 선보인 것이 첫 시도였던 만큼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27일 프랑스 중앙대학학 이날코(INALCO) 대공연장에서 열린 덕송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의 특강 또한 현지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27일부터 28일까지는 세계적인 요리학교인 르 꼬르동 블루와 애플 페랑디에

서 한국 사찰음식을 주제로 한 선재스님의 특강이 있었다.

조계종 대표단은 29일 프랑스 유일 한국 사찰인 파리 길상사에서 사찰음식과 전통불교문화 체험행사를 끝으로 모든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2·3면

프랑스 파리=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社告

2017 불교신문 신춘문에 공모

불교신문은 불교문화 신예작가 등용문인 ‘2017 불교신문 신춘문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한국불교 문단에서 수많은 문인을 배출해 온 역사와 전통의 불교신문 신춘문에 불교문화에 관심 있는 신진작가들의 응모를 기대합니다.

○응모기간 : 2016년 11월 7일(월) ~ 12월 8일(목)

○응모대상 : 불교문화에 관심이 깊은 신진작가

○공모분야

- 단편소설 부문

: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또는 A4용지(아래 한글, 11포인트) 10매 내외

- 평론부문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또는 A4용지(아래 한글, 11포인트) 8매 내외

- 동화 부문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또는 A4용지(아래 한글, 11포인트) 4매 내외

- 시·시조 부문(5편 이내)

○상 금

- 단편소설 500만원

- 평론 300만원

- 동화 300만원

- 시·시조 300만원

* 당선작은 각 분야에서 1편을 선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선작 상금의 반액을 지급하는 ‘가작’ 선정

* 관련법에 의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임

○당선작 발표 : 2017년 1월 1일 신년특집호(당선자에 한해 개별통보)

○접 수 처 :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건지동) 전법회관 5층

불교신문사 신춘문에담당

○유의사항

1. 결봉투에 신춘문에 현상공모작품(응모분야)임을 명기해주시시오.

서류봉투에 담아 접수 바랍니다. (일반우편봉투 접수 불가)

2. 기 발표 원고 및 표절, 타 신문이나 잡지에 중복 응모된 작품임이 밝혀지면 당선이 취소됩니다.

3. 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수상작에 대한 판권은 본사가 소유합니다.

5. 맨 첫 장에 작품과 별도로 응모분야, 인적사항(본명, 나이, 주소, 연락처)을 기입해 주십시오. (작품내용 안에 이름 등 인적사항 명기하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6. 우편접수와 내방접수만 가능합니다.

단, 해외에서 응모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인터넷 접수를 받습니다. (해외에서 접수 시 한국 내 연락 가능한 연락처 필히 기재요망) (bud22@ibulgyo.com)

○문 의 : (02)730-4489(신춘문에 담당)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사

결 의 문

서울시는 재벌특혜 졸속행정 현대자동차 사옥(GBC / 105층, 553미터) 개발계획 인허가 즉각 중단하라!

대한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1,700년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는 종단이다. 나아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이를 후대에 계승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을 표방하고 있으며, 헌법 제9조에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와 서울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인 강남구 삼성동 구 한전부지 지상에 해발 479.7미터의 남산타워 위에 25층 아파트가 더해진 높이 553미터, 105층에 달하는 초고층 대규모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더욱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9월 2일 도시건축공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현대차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가결시킴으로써 현대자동차를 위한 특혜와 졸속적인 인허가 행정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는 헌법에서 표방하고 있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이며, 나아가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발전 의무를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구 한전부지의 원 소유주인 봉은사의 한매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원소유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마저도 무시한 한국전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2. 현대자동차는 1,200년 봉은사의 역사문화수행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확한 초고층 대규모 사옥 건축계획을 55층 이하로 전면 수정하라. 만일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불교도들의 거센 현대자동차 불매운동에 직면할 것을 경고한다.
3. 박원순 서울시장의 현대자동차 사옥 개발계획을 강행할 경우 헌법파괴, 전통문화 파괴의 책임을 물어 전국사찰의 출입을 금지하고,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범불교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이다.
4.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일동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전통사찰 봉은사의 역사문화수행환경 보존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불기 2560(2016)년 10월 17일

Ⓜ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일동